기획예산처	보도설명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6.(금)

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하지 않아 '쌈짓돈'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내용 >

□ 2026.11.6.(금) 한국일보는 「[단독] 미래기금 103조 위탁수익 '0원'? 국회 의결 없이 돈 쓸 길 열어둔 정부」 제하의 기사에서,

○ "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3조여억 원을 민간 투자운용사에 맡기기로 해놓고, 여기서 나올 운용수익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한 푼도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 여유자금을 굴리는 정부 기금 중 수조 원대 자금을 두고 수익을 0원으로 잡은 곳은 미래대응기금이 유일하다"며,

○ "계획에 없는 수익은 국회 심의·의결 없이 정부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만큼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지적"이 있고, "정부가 맘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'쌈짓돈'이 생기는 셈이다."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□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**특정 연도 수익률 측정의 불확실성, 수익 발생 시점**과 **수익 회수 시점**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**실제 수익 회수 시점에 기금 수입으로 계상**할 예정입니다.

○ '27년 대규모 추가세수 발생으로 여유자금 **회수 필요성이 낮은 상황**에서, **지출 대기성 자금**을 **최소화**하고 상대적으로 **수익률이 높은 중장기 자산**에 투자하여 운용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, **'27년에는 별도 여유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운용기관에 지속 예치**할 계획입니다.

○ 또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은 **최소 국채 이자율 이상의 수익률**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**연도별 단기 실현 수익**은 시장 여건과 회수 시점에 따른 **불확실성**이 있어 **사전에 수익률**을 **예상**하기 어렵습니다.

○ 반면, **기금운영비(225억원)**는 여유자금 회수와 무관하게 **자산 위탁** 등에 필요한 비용인 만큼 **지출에 반영**하였습니다.

○ 필요시 향후 **국회 심사과정**에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계상과 관련하여 **추가적인 논의**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

□ 또한 **모든 기금운용계획 변경**은 **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절차와 한도**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 따라서 **계획에 없는 수익**은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**"쌈짓돈"**이라는 지적은 **전혀 사실이 아니므로**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대응기금 추진단	책임자 담당자	단 장 박성훈 (044-214-1690) 서기관 박성준 (bbakko0@korea.kr)
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김정애 (044-214-2330) 서기관 하치승 (hcs017@korea.kr)